



박신배 | 그리스도대

## 1. 들어가는 말

구약학자로서 교단에 서서 교수하고 연구하는 자리에 서 있다가 후배 교수에게 자리를 내 주고 은퇴한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며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길이다.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구약의 전승을 생각하니,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도 든다. 여성구약박사 1호이며, 괴팅엔 대학 한국인 박사 1호라는 선구적 위치에 서서 한국 여성신학과 구약학 연구 분야를 이끌었던 이경숙 교수는 후학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본다. 이 논문에서는 이 교수의 구약역사서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신학의 관점에 대하여 논의를 하려고 한다. 먼저, 여성신학과 페미니즘, 여성주의 비평에 대하여 살피고 여성신학의 한국적 맥락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sup>1)</sup> 여러 논문들 중에 특히 구약역사서(신명기 역사, 역대기 역사) 논문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경숙은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를 학문적 차원에서 다루기보다 여성 중심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여성해방이라는 차원에서 여성신학과 여성비평적 방법론으로 연구한 이경숙의 신학 내용을 주로 논의하며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한 목적과 이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여준 여성의 가치와 위치, 교회의 질서 안에서 여성의 존재이유를 찾고자 한다.

## 2. 여성신학, 여성주의 비평, 여성신학적 성서 해석방법론

여성주의 비평(feminist criticism)은 성서 본문 안에 들어 있는 저자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포착하여 남성의 관점으로 저술한 것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다. 남성의 관점을 갖고 남성의 가치체계를 규범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며 남성 중심의 본문을 통해 독자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동의하고 남성 관점을 보편적인 것으로 보고 그러한 남성 경험을 규범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sup>2)</sup> 여성주의 비평가는 성서 본문의 정체성에 대해, 성 역학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며 성서 읽기 과정과 본문이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미묘한 방식에 주목한다. 그리고 남성화 과정을 깨려한다. 독자 반응비평처럼 “본문이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을 갖

---

1) 구약 역사서의 여성신학의 논문 주제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이경숙, “다윗 왕조에 관한 신명기 기대와 비판,” “솔로몬 성전과 법궤,” “여성신학과 한국 교회: 성서기자의 눈으로 본 여성의 유형-열왕기를 중심으로” 논문이 역사서 논문이지만, 그 외에 여성에 관한 문제를 다룬 논문 중에 역사서(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서)부분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을 막아낸 지혜로운 여인,” “사울이 방문했던 엔들의 무당,” “모세와 사무엘에 버금가는 민족의 구원자 드보라,” “사울의 후궁 리스바 말없는 항거,” “다윗을 유혹한(?) 밧세바,” “요시아 종교개혁의 동반자,” “동족과 복수에 희생된 삼손 부인,” “여성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입다의 말 설화,” “이탈라의 정치적 운명,” “한나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신학” 등이다. 여성신학 논문 45개 중에 대부분은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행되는 <기독교 사상>지에다 게재된 논문들이다.

2) 유연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창 16:8): 페미니스트 비평과 하갈과 사라 이야기(창16장과 21장), 『구약논단』 제 23집(2007. 3), 102.

고 있고 본문 안에 “설득의 수사학”이 있다고 보며,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의 역학관계를 파악하려고 한다.<sup>3)</sup> 여성주의 비평적 성서 읽기는 가부장제에 대한 일종의 방어전으로서 본문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본문의 가부장제 틀에 대항하여 성서읽기를 한다. 성서본문의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등장인물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화자의 남성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려는 작업이다.

구미정은 여성신학의 가능성을 모태에서 보고, 한국 교회와 예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덤에서 모태로’라는 주제로, 여성되기를 주장한다.<sup>4)</sup> “무릇 모든 ‘되기’(becoming)가 윤리적이기 위해서는 항시 ‘소수자 되기’ 여야 한다는 게 예수의 가르침이다.” 남성 신학-기계들이 여성이 되기를 바라고, 여성신학-기계들과 접촉하라고 한다. 생명체의 동종교배가 아닌 이종 교배를 통해 강해지는 것처럼 여성신학하기로 모태의 생명력을 가진 신학이 되기를 주장한다. 벨 훅스가 구상하는 페미니즘처럼, 페미니즘 혁명은 물론 인종주의, 학벌주의, 제국주의가 종식되는 것을 기대하고, 인간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현실에서 성취하여 페미니즘의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임을 말한다. “페미니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Feminism is for Everybody)고 주장한다.<sup>5)</sup> 박경미는 한국 여성주의적 성서해석은 이데올로기 비판과 자기 반성, 의심의 해석학과 신뢰의 해석학,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예와 아니오’의 그 영원한 모순 속에, 그 막힘과 트임 속에 몸을 실어 성서살기, 예수살기의 새 지평을 여는 것이라 본다.<sup>6)</sup> 여성신학이 갖는 생명력과 그 성격으로 신학

3) 유연희, 같은 글, 102-103.

4) 구미정, “무덤에서 모태로”-한국교회의 환골탈태를 위한 대안적 상상력, 『신학사상』제 145집, (2009, 여름; 한국신학연구소), 245-267.

5) 구미정, 같은 글, 261. 재인용, 벨 훅스/박정애(옮김), 『행복한 페미니즘』(서울: 백년글사랑, 2004), 12-13.

6) 박경미, “오소서, 창조자의 영이여-한국교회와 여성주의적 성서해석,” 『기독교사상』제 470집 (1998, 2월, 대한기독교서회), 27.

의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경숙은 ‘여성해방과 성서해석’에서 성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입장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sup>7)</sup> 첫째 유형은 성서가 여성 해방에 걸림돌이 됨으로써 성서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포기설이다. 이들은 기독교를 포기하는 탈기독교적 여성해방신학자, 급진 과격파라고 칭함을 받는다.

두 번째 유형은 중도적 온건노선으로 성서에 대해 아주 옹호론적인 태도를 지닌다. 대부분 한국 여성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속한다. 성서 자체는 여성 억압적이 아닌데, 남성들에 의해 잘못 해석되었으며, 여성들은 이제 이러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본래 메시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 방법에 대하여 이경숙 교수는 옹호하며 한국 상황에서는 교회 여성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여성 해방적 시각을 열어주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수정모델’로서 성서 안에 가부장적 문화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성서 안에 숨겨지고 왜소화된 여성 지도자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숨겨져 있는 훌륭한 여성을 밝혀내려고 한다(이영미, 유연희, 김호경).

네 번째 유형은 ‘해방모델’ 혹은 ‘갈등모델’로서 성서 속에는 여성 억압의 현실이 아주 생생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여성 억압의 참혹한 이야기들이 있는 성서를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여성 성서신학자 피오렌자는 ‘의심의 해석학’ 혹은 ‘기억의 해석학’이라는 해석학의 틀로 성서 해석을 시도한다. 성서 이야기들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당했던 비참하고 굴욕적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

---

7) 이경숙, 같은 글, 189. 재인용, “여성해방과 성서해석,” 장상/소흥렬(역음), 「신학하며 사랑하며」(서울: 문학과지성사, 1996), 67-81. 이경숙, 「구약성서의 하나님·역사·여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68-292.

게 하고' 해결하도록 초대하는 이야기라고 해석하였다.<sup>8)</sup>

다섯 번째 유형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성서 안에서 여신 숭배 흔적을 찾거나 여성의 몸을 찬양하는 연구이다. 이 방법은 민중들이 여신 숭배를 하였다는 것이 당연히 여성의 위치를 높여 주는 것이냐는 반문을 통해 극단적인 방법을 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제 새로운 교회와 창조의 질서의 차원에서 여성신학하기 해석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김애영은 페니미즘의 용어정의에서부터 여성해방적 예배 연구를 통하여 여성신학의 논의를 이끈다. 페미니즘(Feminism)이라는 말이 '여권주의' 혹은 '여성해방주의'라는 말로 사용되며, 1960년대이래 페미니즘의 제 2의 물결의 시기에 정치, 경제, 문화, 심리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여성 해방을 추구하였던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났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때에 주도적으로 그리스도교 여성 해방 운동에 앞장선 신학자들이 레티 M. 러셀, 로즈마리 R. 류터, 엘리자벳 S. 피로렌자 등이라고 본다. 그녀는 '여성해방적 예배'(feminist liberation worship)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롭고 평등한 인간 공동체와 생태-정의(eco-justice)형성의 비전을 제공하며 세계 사회 변혁의 동기와 실천/이론을 제시하려고 한다.<sup>9)</sup>

양명수는 "폴 리코르의 해석학과 해석학"이라는 논문에서 철학적, 조직신학적 방법으로 여성신학의 방법론을 논의한다.<sup>10)</sup> 리코르의 해석학이 해방신학이나 여성신학 같은 이데올로기 비판을 중시하는 신학에 영감을 준다. 신앙의 영성을 중시하면서 비판적 신학을 하기에는 그의 해석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쉬나이더스는 통합의 해석학을, 맥페

8) 이경숙, 같은 글, 190. 재인용. E. S. 피오렌자/김윤옥역, 『돌이 아니라 빵을』(서울: 대한기독교 사회, 1994), 54-59.

9) 김애영, "여성해방적 예배의 추구하고 전망," 『신학사상』제 146집 (2009, 가을; 한국신학연구소), 133-161.

10) 양명수, "폴 리코르의 해석학과 여성신학," 『신학사상』제 149집 (2010, 여름; 한국신학연구소), 163-208.

이그는 새로운 모델을 통한 여성 해방의 신학을 마련하기 위해 리콰르의 해석학을 이론적 기반으로 사용했다고 밝힌다. 파멜라 앤더슨은 로고스 중심의 철학보다는 신화의 은유 세계에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을 찾기 위해 리콰르 이론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신학이나 신앙은 성서라고 하는 은유의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여성신학이 성서를 버리지 않고 신학하면서 리콰르의 해석학적 통찰력을 적용할 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제안한다.<sup>11)</sup> 다른 한편, 여성신학은 생태여성주의, 생태학과 여성주의가 결합되어 발전하여 생체 기술학과 사회 생명학 등을 다루며 우주 기원적 관점에서 창조적 진화를 다루기도 한다.<sup>12)</sup>

### 3. 한국 여성신학과 한국신학

여성학이 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장상은 여성신학의 미래 연구 방향을 잘 예측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여성 해방신학은 기독교 전승이 여성해방적이냐는 관심에서 여성해방적 전승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신학의 초기에는 성서와 전통적 기독교 신학의 가부장적 요소를 비판하며, 기독교의 여성해방적 가능성을 규명하는데 모든 노력이 집중되었다. 그 다음에는 여성신학의 방법론 모색으로 옮겨졌으며, 이제 여성신학은 신학의 규범 또는 전거 자체를 재검토하는 데로 방향이 잡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독교 전승 외의 전승이 여성해방의 자료로 사용되며, 뿐만 아니라 여성해방을 구원의 실재 그러므로 여신 종교의 등장이나 여성신학의 과격성이나 다양성은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여성신학의 그와 같은 경향성은 다원화 시대, 포스트모던의 시대, 혼합

---

11) 양명수, 같은 글, 204-205.

12) Ivone Gebara, "Ecofeminism," L. M. Russell/J. S. Clarkson(ed), *Dictionary of Feminist Theologies*,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77-78.

종교의 시대의 한 징표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sup>13)</sup>

이경숙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적중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여성신학의 방향성의 굴곡된 입장이 될 수 있음과 여성신학에서 경계해야 할 중요한 대목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이경숙은 “한국 여성신학의 발자취와 미래: 주제별 고찰과 내일의 과제”에서 여성신학의 위치를 말하며 자신의 여성신학을 말하고 있다.<sup>14)</sup> 여성신학의 태동과 한국 여성신학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여성신학은 민중신학, 문화신학, 통일신학, 생태신학, 아시아 신학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런 점에서 여성신학은 태극 신학과 대화할 여지가 많다.<sup>15)</sup> 단지 여성신학은 신학과 교회의 문제들을 여성의 관점을 가지고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여성신학은 대안 신학의 형태로 출발하여 전통 신학의 내용이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 억압적으로 굴절되고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여성신학의 내용은 이론 중심적이기보다는 실천 중심적이다. 여성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그 경험 전체를 포괄한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국 교회의 현실이나 성서 해석만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 정치, 사회, 경제, 성, 환경, 생태, 빈곤의 문제까지 여성의 삶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룬다. 여성신학은 포괄적이고 간(間)학문적이다. 또한 여성신학은 성서본문에도 여성 해방에 기여하는 경우, 외경이나 민담, 전설, 역사 이야기 등 기타 자료들도 다룬다. 전통 신학이 성부와 성자를 강조한다면, 여성신학은 성

---

13) 이경숙, “창세기 2-3장에 들어있는 신학적 요소와 그 신학적 메시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성서·여성·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7-28. 재인용, 장상, “기독교 여성관의 재발견,” 창간호(한국여성학회, 1985), 93-121; 장상, “여성신학과 창조신앙의 의의,” 『한국여성신학의 과제』(서울: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1983), 44-62.

14) 이경숙, “한국 여성신학의 발자취와 미래: 주제별 고찰과 내일의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50집, (2007), 175-214.

15) 박신배, 『태극신학과 한국문화』, (서울: 동연, 2009), 99-123.

령을 특히 강조한다고 주장한다.<sup>16)</sup>

여성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이경숙은 한국 여성의 경험에서, 한국 여성신학은 ‘한국 민중 여성신학’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고 보며 한국 여성의 고난의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본다.<sup>17)</sup> 이우정은 ‘한국 전통문화와 여성신학’이라는 논문에서 민중 여성의 삶 속에 나타난 그들의 고난과 항거의 역사를 밝히고, 한국 민중 여성이야말로 한국 역사의 주체라고 소개한다. 또 최만자는 한국 민중 여성신학은 서구 여성신학과 차별되는 성, 민족, 계급 모순이 중층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한국 여성 경험의 특수성이라고 말한다.<sup>18)</sup> 한국 여성의 고난의 경험에서 출발한 여성신학은 예수의 그리스도론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을 내놓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여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선순화), 최영실은 한국 여성신학을 “한의 질곡에서 생명으로 피어나는” 신학이라고 본다. 이은선의 여성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강남순은 예수의 고난이 여성의 고난과 똑같이 일치한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정미현도 예수 고난의 유일회성으로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을 소개한다.<sup>19)</sup> 여성신학의 체험과 고난 경험, 여성 그리스도론에서 더 나아가 성서해석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자.

여성신학의 주제를 이경숙은 영성과 몸과 성, 평화와 생명의 영성, 교

---

16) 이경숙, 같은 글, 181. 재인용. 이경숙, 「구약성서의 하나님·역사·여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7) 이경숙, 같은 글, 182-183.

18) 최만자, “한국여성신학-그 신학 새로 하기의 어제와 내일,” 「여성의 삶, 그리고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39. 재인용.

19) 이경숙, 같은 글, 183-184. 재인용. 선순화, “한국 여성의 경험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한국여성신학회(편), 「한국 여성의 경험」(대한기독교서회, 1994), 17-18. 최영실, “한의 질곡에서 생명으로 피어나는 한국 여성신학,” 「신학사상」, 제 100호 (1998, 봄; 한국신학연구소), 122. 이은선, “한국 여성그리스도의 도래를 감지하며,” 기독교민회(역음), 「발로 쓴 생명의 역사, 기독교민회 20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16-117; 이은선 “유교와 그리스도교,”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국 여성신학」(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1997), 33-35. 강남순, “아시아와 한국이 여성신학,” 「페미니즘과 기독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62. 정미현, “예수인가 바리데기인가,” 「한국여성신학」(2005, 가을; 한국여성신학회), 95-122, 110-111.

회의 민주화, 민족통일을 위한 신학화 작업과 실천, 성서, 여성의 역사와 문화, 종교적 경험 등 다각적으로 다룬다. 특히 민족 담론에 대하여 논의한 부분에서 임희숙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민족을 신학의 주제로 전면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민족은 신학의 한 고려 사항이지, 그것 자체가 신학의 지평일 수는 없다.” 이경숙과 최영실은 민족에 대하여 성서학자로서 논의를 진행하는데 주로 각 민족이 특징과 차별성을 인정해야 하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면 절대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근본적 여성신학의 입장을 피력한다. 한편, 김판임은 세계적 보편주의 입장에서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주장한다. “바울의 민족애와 민족주의”라는 논문에서 사도 바울은 강한 유대인으로서 민족애를 지니고 있었으나 동시에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구원 이해를 지녔다고 분석하고 있다.<sup>20)</sup> 또한 세계화 시대에 여성들이 민족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모색하여야 하는지 여성신학자들의 모색을 소개하고 있다(양현혜, 양미강, 김엘리, 정희성).

여성신학이 생태신학으로, 생태 여성주의로 포괄되고 발전될 것을 도로테 쥘레는 1998년 기독교 사상 좌담회(이경숙, 채수일, 도로테 쥘레)에서 밝혔다.

“저는 여성신학의 노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태 여성주의를 들고 싶어요. 녹색당 여성주의자들이 많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여성신학 쪽에서는 나와 루이제 쇼트로프 교수, 또 그녀 밑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젊은 여성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문제는 여성 해방신학에 대한 것입니다. 모권제적인 낭만주의자들은 점차 물러나지요. 또 그들이 주장하는 모권제가 더

20) 이경숙, 같은 글, 207. 재인용, 임희숙, “세계화 시대의 민족담론과 여성신학,” 한국여성신학회(역음), 『민족과 여성신학』(여성신학사상 6집; 서울: 한들출판사, 2006), 39. 김판임, “바울의 민족애와 민족주의,” 한국여성신학회(역음), 『민족과 여성신학』(여성신학사상 6집; 서울: 한들출판사, 2006), 89-104.

나왔는지는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부권제도 모권제도 원치 않고 무정부  
 부를 원한다고 하지요. 지배 제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종류의 과격한 여  
 성주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들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었어요... 자본주  
 의적, 기술만능주의적 부권제가 세계를 얼마나 파괴하는지가 명백해지기를 바  
 라요. 모두가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전환  
 은 생태학에서 시작할 것입니다.”<sup>21)</sup>

아시아 여성신학의 정립을 위해 근본주의와 민족주의로부터 탈피(피  
 오렌자), 한국 기독교의 유교화, 샤먼화, 도교화, 불교화로부터 독립(정  
 현경), 여성신학을 위한 역사비평적 방법 연구와 서구의 학문과 우리의  
 전통 모두 연구(이경숙)해야 하며, 중국교회는 문자주의적 성서 이해로  
 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곽푸이란)고 주장한다.<sup>22)</sup>

여성신학이 희년을 맞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속의 과제를 말한다.  
 여성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희년을 선포함으로써 가난하고 상처받은 영  
 혼, 갇힌 자들을 위한 예언자들의 외침이며, 민족과 사회를 치유하는 것  
 이며, 불신과 편견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사실을 주장한다.<sup>23)</sup> 또한 구약의  
 제의법에서 여성 억압적 차원을 거론하며 여성의 시각에서 새로운 성서  
 연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여성의 올바른 위치 정립”이라는 글은 <여성들을 위한 신학> 이우정  
 편저(한국신학연구소, 서평이다.<sup>24)</sup> 여러 여성신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  
 며 논란이 되는 여성신학의 쟁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여성

21) 김선희, “도로테 쥘레 좌담회(쥘레, 이경숙, 채수일), 「기독교사상」제 475집, (1998, 7월, 대한  
 기독교서회), 76-77.

22) 이경숙/피오렌자/곽푸이란/정현경, “아시아 여성신학 정립을 위한 제언,” 「기독교 사상」제  
 456집 (1996, 12), 69-87.

23) 이경숙, “희년을 향한 한국 여성신학의 과제,” 「기독교 사상」제 371집 (1989, 11; 대한기독교서  
 회), 77-88.

24) 이경숙, “여성의 올바른 위치 정립,” 「기독교 사상」제 334집 (1986, 10), 184-188.

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상을 부각시키며 여성의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 전이되는 과정, 어머니 가슴의 평온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해석(필리스 트리블, “은유의 전이-모태에서 자비로”)하는 것과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칭호가 양성적 칭호로 대치되어야 한다(메리 데일리)는 것 등이다. 한국 여성신학은 한국 여성 문제가 풀리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격적 관계와 신앙문제로 풀릴 수 있음이 전제된 것이리라.

#### 4. 여성신학, 구약학 연구하기

여성신학의 증거를 위한 성서의 여성 인물과 주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경숙은 미리암 연구에서 여성 억압의 본문들 중에 미리암 기사는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sup>25)</sup>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희생자로서 미리암을 보며, 여성 지도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여성의 정체성에서 볼 때 여성 억압의 본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여성 중심적인 시각, 여성주의 비평에서 구약읽기 작업을 하기에 구약 역사적 해석과 문제점보다는 이경숙에게는 여성의 시각, 여성 해방적 관점이 더 중요한 것이다. 룯과 나오미, 보아스의 텍스트도 시형제 결혼, 고엘 제도의 남성 중심적 성격을 본문의 문제로 삼는다. 현대의 시점에서 이 제도는 거부되어야 하고, 고대 성서시대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평가한다.<sup>26)</sup>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인물이 서로 신실한 관계를 통해 공동체의식으로 결속되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역할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그녀는 여성 해방적 의미에서만 의미 있는 것을 찾고

25) 이경숙, “출애굽의 여성 지도자 미리암,” 『기독교 사상』 제 412집 (1993, 4), 179-185.

26) 이경숙,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신실한 룯, 나오미, 보아스,” 『기독교 사상』 제 424집 (1994, 4), 168-177.

있다.

여성신학자 이경숙은 창세기 2-3장 연구에 있어서 기독교 2000년 동안, 남성중심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위치를 매우 격하하였다고 말한다.<sup>27)</sup> 성서는 본래 여성이 남성과 평등함을 말하고 있다고 보며, 성서 기자는 창세기 2-3장에서 고대 근동의 신화를 빌려 이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본다.

“우리가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신화적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서 기자를 통해 주신 신학적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녀의 불평등, 그리고 남녀의 고통스러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의 교만 내지는 불복종에서 나왔다는 창세기 2-3장의 신학적 진술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가부장제를 고발하고’ 남녀평등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는다.”<sup>28)</sup>

그 연구의 결론에서 언급한 말 중에서 남녀평등사회를 나가기 위한 담론으로서 결어는 인상 깊고 그 신학적 메시지는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의 신화적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전제는 평신도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들이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신화나 동화적 내용을 빌려서 성서기자가 표현하려는 신학적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성서의 내용이 신화나 동화라고 보는 입장은 축자영감설을 따르고, 문자적 해석을 하는 보수적 신앙, 보수적 교단 신학의 입장에 있는 신학자나 신앙인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보편타당성을 가진 구약 신학적 논의를 좀 더 설득력 있는 논지와

---

27) 이경숙, “창세기 2-3장에 들어있는 신화적 요소와 그 신학적 메시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성서 · 여성 · 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52.

28) 이경숙, “창세기 2-3장에 들어있는 신화적 요소와 그 신학적 메시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52.

논리로서 여성신학적 담론을 펼치는 것은 어떤가? 초기 여성주의 비평의 담론에서는 파격적인, 신화적 해석으로 평가하는 것이 후기에 가서는 새롭게 해석하는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조상 사라와 베두인의 조상 하갈 이야기: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중심으로” 연구는 여성신학의 프리즘을 가늠하는 중요한 논문이다. 시작하는 말에서 여성신학의 정의를 들면서 강남순의 정의를 수용한다. “인기를 끌기 위해 이슈를 위한 이슈를 창조하는 신학의 장난”이 아니라 성차별, 종족차별, 계급차별 등을 비판하려는 신학적 노력이다. 그리고 여성신학은 인간 사이의 평등과 함께 모든 피조물간의 평등, 즉,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와 평등도 강조한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사라를 지지하던 해석의 방향에서 베두인의 조상 하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갈의 입장에 서서 성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 억압당하는 하갈은 사랑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해방됨으로서 오늘날 일부다처 제도를 비판하고, 하갈의 해방을 보여준다. 베두인의 조상이라는 것은 야훼의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sup>29)</sup>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창 29:31-30:24; 35:16-20)” 연구도 이스라엘 12지파 형성의 어머니, 두 여인의 연합과 갈등, 연대를 강조한다. 레아의 고통과 아픔과 더불어 라헬의 고통도 알고 들어주지만 늦게까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언급한다. 두 여인의 연대를 통한 편안하고 안정된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 작업은 오늘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할 준비를 하는 것이며, 새로운 세상과 평등한 사회를 낳고 키우고 살릴, 사회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각오를 다져야 함을 지시한다.<sup>30)</sup> 여기서

29) 이경숙, “이스라엘의 조상 사라와 베두인의 조상 하갈 이야기: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제 410집 (1993, 2), 164-165.

30) 이경숙,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창 29:31-30:24, 35:16-20),” 「기독교사상」, 제 411집 (1993, 3), 209-210.

여성들의 갈등과 반목이 아닌 창조적 작업을 위한 연대를 강조하는 여성 신학의 단초를 제시한다.

“다윗 왕조에 관한 신명기 역사가들의 기대와 비판”이란 글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쓴 역사서 연구는 아니다. 신명기 역사가가 긍정 사가는 아니라고 보며, 유다 왕국이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멸망의 위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한 역사가들이라고 본다.<sup>31)</sup> 포로 시기 후기 신명기 역사가들이 다윗 왕조에 관한 희망과 더불어 다른 방향의 해석도 모색하였다고 보았다. 그녀는 두 개의 편집 층을 상정하여 최종 편집자가 바빌론 포로기라고 보고 있다. 구약역사서 중에 신명기 역사가의 시기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경숙은 “동족과 복수에 희생된 삼손의 부인-딤나의 여인(삿 14:1-15:8)”에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에 주목받지 못한 주제에 집중한다. 삼손이 처음 결혼한 여자가 들릴라가 아니라 무명의 딤나 여인이었다고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 딤나 여인 이야기는 여성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하며 이 딤나 여인은 남성들에 의해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필리스 트리블도 사사기 14-15장에 등장하는 이 딤나 여인을 다루지 않은 것은 한계라고 지적한다. 이 딤나 여인의 이야기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여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모델이 되며 억울한 주임을 당한 수많은 여성희생자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sup>32)</sup> 이 이야기에서 딤나 여인의 비극성을 차디카 혼인, 강요된 연극과 이에 따른 비극들, 제3의 비극 등으로 나누어 죄 없는

31) 이경숙, “다윗 왕조에 관한 신명기 역사가들의 기대와 비판,” 『기독교 사상』 제 341집 (1987, 5), 129.

32) 이경숙, “동족과 복수에 희생된 삼손의 부인-딤나의 여인,” 『기독교사상』 제 421집 (1994, 1), 187-189.

역사의 희생을 밝힌다. 억울한 여인의 죽음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반대로 들릴라의 유혹을 강조하여 유혹과 배반을 여성의 일반적 속성으로 치부한 점을 비판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수난사 속에 여성희생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임진왜란, 병자호란에서 생긴 말 ‘환향녀’, 윤금이 사건 등을 거론한다.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읽는 창녀 라합이야기(수 2:1-24; 6:22-26)”에서 이경숙은 라합은 창녀라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직업인으로서 매우 능동적이고 과감하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남성들의 전쟁에 가담하였다고 해석한다.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라합보기는 복합적인 시각이 들어간다. 여리고성 정복의 결정적인 역할과 예수의 족보 수록인물이라는 점이 기생 라합의 인물 연구에 단순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다. 이방 여인이 남성을 유혹하는 점을 통해 우상 숭배의 원천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다수인데 비해 이 라합 이야기는 그렇지 않음도 그 특징이 된다. 이경숙은 여러 성서 연구 방법론을 통해 남녀의 평등과 여성의 존엄성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으려는 노력이 여성신학적 성서비평이라 말하며 다양한 방법론으로 라합 기사를 연구한다. 라합 기사에서 신명기 역사가들에 의해 야훼를 칭송한 여인으로 변하게 되었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여인으로 해석되면서 라합이 살몬과 함께 보아즈를 낳았다는 전승도 만들고, 또 다윗의 족보와 예수 족보에 오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sup>33)</sup> 또한 시형제 결혼을 쟁취하여 구원사를 엮어 낸 이방 여성 다말과 롯은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네 명의 여성 중에 속하며(밧세바 포함), 외국 여인들의 반란과 도전, 호소를 적극 지지하고 대변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sup>34)</sup> 이윤경은 쿤란공동체 안식일 규정에서 거룩함을 요구하

33) 이경숙,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읽는 창녀 라합이야기 (수 2:1-24; 6:22-26),” 『신학사상』 제 134집 (2006, 가을), 47-66.

34) 이경숙, “시형제 결혼을 쟁취하여 구원사를 엮어 낸 이방여성 다말과 롯,” 한국여성신학회(역음), 『다문화와 여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28-9.

는 조건에 여자와의 성관계를 금한 것을 지적한다.<sup>35)</sup> 이는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신학적 재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본다.

또 “여성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입다의 딸 설화: 사사기 11장 1-40절” 연구에서 이경숙은 에밀레의 사연을 소개하며 논의를 이끈다. 그리고 여성 인신 제사에 대한 역사와 신화 등을 거론한다. 또한 사사기 11장의 사사 입다의 무남독녀 외딸 인신 제사와 관련하여 성서의 입장은 인신제사를 철저히 거부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입다의 딸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인신제사의 희생물이 된 것을 말하며 입다의 딸이 희생당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묻는다. 그것은 필리스 트리블은 입다의 서원으로 딸이 희생당한 것에 분노한 것으로 입다의 불신앙이라 본 반면, 이경숙은 여성의 인신제사를 종결시키려는 성서 편집자(신명기 사가)의 의도라고 주장한다.<sup>36)</sup> 특히 우리 한국 이야기 심청전, 에밀레종, 대사제치전설 등을 비교하여 다룬다. 입다의 딸 희생 사건을 기념하여 애곡하는 의식을, ‘제도를 바꾸어 놓은 여성들의 연대성’이라 해석한다. 이런 여성의 연대감이 사회와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본다.<sup>37)</sup>

한나 이야기(삼상 1:1-2:11)에서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적 작업을 언급한다. 한나는 개인의 체험을 뛰어 넘어 언제나 약자 편에 서시는 야훼 하나님을 일반화하여 자신의 체험을 승화시킨 여인으로 본다. ‘마리아 찬가’나 한나와 찬양시의 연결은 여성신학도와 다른 억압받는 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메시지로 보고, 한나의 신학은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이라고 표명한다.<sup>38)</sup>

“사울이 방문했던 엔들의 무당(삼상 28:3-25)” 연구에서 이경숙은 무

35) 이윤경, “쿨란공동체의 안식일 이해: 안식일 법, 정결례, 예식,” 『신학사상』 제 149집 (2010, 여름), 54-60.

36) 이경숙, “여성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입다의 딸 설화: 사사기 11장 1-40절,” 『기독교사상』 집 422집 (1994, 2), 194.

37) 이경숙, 같은 글, 201.

38) 이경숙, “한나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신학,” 『기독교 사상』 제 426집 (1994, 6), 141.

당을 언급하며 엔들의 무당이야기와 사무엘의 혼백을 통해 한국 기독교와 무속의 관계를 생각하며 한국 여성신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한다. 엔들의 무당은 야훼 종교에 속한 인물이 아니지만 그녀는 다른 종교인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한 점에서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본다. 이경숙은 엔들의 무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포용적인 태도, 희생적인 사랑의 표시, 탈진한 이웃에게 삶의 기력을 제공하려는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어머니의 모성적이고 여성적인 종교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말한다.<sup>39)</sup> 이는 행동의 선함을 가지고 구원의 이르는 신앙 세계를 도외시키고 있는 그런 평가는 문제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필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행간의 글 여백을 통해 전달하려는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차원을 말하려고 하며, 즉, 타종교와의 대화와 평화로운 종교인과의 협력과 상생을 강조한 것이라 본다.

“아탈라의 정치적 운명(왕하 11:1-21)” 연구는 구약 역사서와 구약성서 전반에 등장하는 여성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여자로 아달라를 들 수 있는데, 그녀에 관한 연구이다. 이경숙은 여성으로서 남 유다를 6년간 홀로 통치한 아탈라를 섭정자리를 놓고 권력다툼을 벌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계열에서 그녀에 대해 극악무도한 여인으로 그렸다는 사실을 밝히려 한다. 아탈라의 배경으로 오므리 왕가의 아합과 이세벨, 개방적 외교 정책에 대하여 다루며 성서기자(신명기 역사가)의 종교적 평가에 따른 편향적 평가가 오므리 왕조 전반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후 혁명으로 아합 집안의 왕자 70인이 살해당하고(왕하 10:7), 남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 42인도 모두 살해당한다(왕하 10:14). 결국 황태후 아탈라와 여호야다 제사장 가문과의 싸움은, 북왕국 오므리의 딸이라는 이유로 유다 다윗왕조의 정통성에 희생당한 것이

39) 이경숙, “사울이 방문했던 엔들의 무당: 삼상 28:3-25,” 『기독교사상』 제 420집 (1993, 12), 202-205.

라 본다. 여호야다 제사장 그룹에 패배를 당한 아탈라는 잔인무도한, 악마의 화신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호야다의 섭정권이 낳은 반란으로 아탈라는 누명을 쓰고 살해당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여성신학은 ‘의심의 눈’으로 성서를 읽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도록 하는 작업임을 맺는말로 주지시킨다.<sup>40)</sup> 여성 해방적 시각이 아탈라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성서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경숙은 구약 열왕기에 나타난 여성의 유형을 논하면서 ‘의심’, ‘고발’, ‘기억’의 해석학으로 평등공동체 건설을 위한 여성신학하기와 그 역사 해석을 주장한다.<sup>41)</sup>

이경숙은 “요시아 종교 개혁의 동반자, 여예언자 홀다” 라는 논문에서 여성 안수 문제를 제기하며 요시아 종교개혁의 동반자, 혹은 충고자로 종교 개혁의 공동주역을 한 예언자 홀다의 역할을 다룬다.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들고 홀다에게 물어보아 그 책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경숙은 아훼의 뜻을 전한 여예언자 홀다, 그녀가 역대기와 열왕기에서 자료를 남긴 것은 남성중심적 구약역사서의 편집 성향에도 불구하고 언급된 것에 높게 평가를 한다.<sup>42)</sup> 여성 지도자로서 예언자 홀다는 종교개혁가이며 홀다의 신탁은 율법책 만큼이나 중요한 종교 개혁의 큰 역할을 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그녀는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 반열에 들 수 있을 거라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알려지지 않는 잊힌 많은 여성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며 한국 교회에도 종교 개혁을 위해 여성 종교 지도자와 더불어 동반적 작업을 할 때 종교개혁이 성공할 것이라 암시한다. 여성해방 운동가로서 홀다 바라보기는 새로운 종교개혁의 의미를 창출하는데 뜻있는 작업이지만, 성서가 본래 의도한 개혁의 의미를 포착하는 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40) 이경숙, “아탈라의 정치적 운명(왕하 11:1-21),” 『기독교사상』 제 423집 (1994, 3), 181.

41) 이경숙, “성서기자의 눈으로 본 여성의 유형,” 한국기독교학회(역음), 『여성신학과 한국교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105-8.

42) 이경숙, “요시아 종교 개혁의 동반자, 여예언자 홀다” 『기독교사상』 제 419집 (1993, 11), 192-198.

하비 콕스는 여성신학의 입장보다는 성령운동에 대한 관점에서, 여성과 음악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시하였다. 여성이 성령운동 확산의 주체라고 하면, 음악은 성령운동 확산의 주된 매개 수단이라고 본다.<sup>43)</sup> 여성 성령운동과 여성 운동가 연구를 통해 여성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다. 하지만 여성신학에 대한 보수적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 A capella)는 보수적 신앙으로 신약성서를 교회 헌법이라 본다. 따라서 신앙생활과 교회직제에 중요한 법으로 신약 성서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려 한다. 신약에서 말하는 여성의 역할을 규정한 것을 축자적으로 해석한다. 여성의 본래의 성품과 기능에 따라 여성의 역할을 보려고 한다. 교회 안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전 14:34)’고 하여 여성의 침묵성의 의미를 적용한다. 그래서 여성의 집사 안수나 공적 예배에서 기도를 금한다. 물론 여성 목사 안수 제도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배경에는 신약 교회의 정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교회 안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여성의 위치와 기독교 가정의 여성 윤리에 있어서 침묵성과 고유의 여성성의 의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법칙과 그 섭리를 보여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sup>44)</sup>

그러면 여성차별이나 여성 불평등을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여성의 교회주도권이 너무 지나치게 큰 것을 억제하며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간구하는 뜻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신학적으로나 인류 사회학적 방법론으로 성서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여성의 평등성에 대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의 품성과 속성을 지키며 여성의 카리스마가 크더라도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나서서 남성의 역할을 위축하게 하는 것을 막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오늘 여성신학에서도 주목할 대목이라고

43) 하비 콕스/유지황(옮김), 「영성·음악·여성: 21세기 종교와 성령운동」, (서울: 동연, 1998), 182.

44) 박신배, 「환원신학의 세계: 초대교회로의 행진」(서울: 더북, 2013), 178-191.

본다. 성서의 가부장적 체제를 해체하고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모태의 생명성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가정에서 역할 등은 여성적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더 많고 더 큰 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그 사람의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 이 두 양성성이 다 있다. 즉, 남성 안에는 여성성이 있고, 여성 안에도 남성성이 있어서 성품의 조화를 이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온전히 이루어, 인간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운 성 정체성(sexuality)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sup>45)</sup> 여성의 덕목에 있어서 침묵에 대한 강조는 공적 연설을 제한하고 금지시키게 한 것이었다. 순종과 겸손, 가정 지킴과 돌봄의 여성성과 모성애는 인간 공동체의 중요한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여성신학적 관점과 여성성 존중이라는 차원은 기독교신학에서 중요한 신학적 중심으로서 위치를 가지게 된다.

성서가 고대 사회 안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가부장적 구조와 성서 독자층이 남성들 위주임을 감안할 때 여성의 시각으로 성경 다시 들여 보기 작업은 여성주의 성서 해석 방법을 불러들였다.<sup>46)</sup>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창 38:26)는 고백은 오늘날 21세기 현대 사회 성서 해석에서, 논자는 “여성이 더 남성보다도 의롭다”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본다. 여성 신앙 공동체가 더 단정하고 경건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강렬하게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환원 운동가 알렉산더 캠벨이 자신의 부인 셀리나 캠벨에 대하여 극찬하면서 여성에 대하여 말한 말이 이 글의 말미에서 더욱 의

---

45) 서현선, “초기 기독교의 여성다움(Feminity)이해,” 서원모/방성규/이정숙/서현선(편역), 「여성고초대 기독교」(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24-25.

46) Alice L. Laffey,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 Feminist Perspectiv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1-4.

미심장하게 들린다.<sup>47)</sup>

“하나님 다음으로 여자가 살아있는 인간 세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여자는 이 세계 내에서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며 다가올 미래의 아름다운 세계를 담당할 인물로 만든다.”

## 5. 나가는 글

여성신학을 넘은 구약학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 글쎄, 그 동안 페미니즘의 시각이 대두되면서 이데올로기적 해석으로 양성의 평등과 여성의 존엄성과 가치가 높아졌다. 여성신학이 모든 신학을 아우를 수 있는 신학적 입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여성신학으로 구약학을 연구하기는 중요한 과제를 알게 되었다. 구약의 여성, 사라와 하갈, 드 보라, 에스더, 룻, 라합, 홀다 등을 통해 신약의 마리아로 이어지는 구약의 세계, 그리고 여성신학의 관점으로 구약신학을 한다는 의미를 연구해 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남성으로서 여성신학 보기와 여성신학 하기에 는 한계가 있음을 연구하는 동안 계속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 땅에서 여성됨의 체험과 경험이 여성신학을 하는데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며 여성신학 글쓰기에 성적 정체성의 일치가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기본이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여성신학이 갖고 있는 특이성과 생태신학의 과제로 인해 남성이 여성신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남성 안에 여성성, 여성 안에 남성성 존재라는 차원에서 양성이 모두 여성신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작업에 동참하며 그러한 작업은 여성 해방에서부터 시작된 신학적 궁구가 목표로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쉬어지리라 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신학자들이 한 성서에 나타난 가부장적 제도와

---

47) 박신배, 「환원신학의 세계: 초대교회로의 행진」, 190.

남성중심적 해석과 기사를 파헤쳐서 여성의 시각으로 다시 보기 작업을 하여 여성의 존엄성과 남성과 여성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여성의 가치를 고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여성신학의 작업이 생애신학과 통일신학, 오늘날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신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지하였다. 여성신학이 한국 교회와 한국의 지평에서 성서적 진리를 담보한 논의가 좀 더 설득력을 얻는 상태에서 호소력이 좀 더 강하게 퍼지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경숙 교수의 퇴임을 축하하는 동시에 새롭게 여성 해방적 신학의 논거가 교회질서와 창조질서 내에서 여성 담론의 장으로 새롭게 펼쳐지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6. 참고문헌

- 강남순, “아시아와 한국이 여성신학,” 『페미니즘과 기독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김애영, “여성 해방적 예배의 추구하고 전망,” 『신학사상』 제 146집 (2009, 가을; 한국신학연구소), 133-161.
- 김선희, “도로테 질레 좌담회(질레, 이경숙, 채수일),” 『기독교사상』 제 475집, (1998, 7월; 대한기독교서회), 76-77.
- 김판임, “바울의 민족애와 민족주의,” 한국여성신학회(엮음), 『민족과 여성신학』(여성신학사상 6집; 서울: 한들출판사, 2006), 89-104.
- 구미정, “무덤에서 모태로”-한국교회의 환골탈태를 위한 대안적 상상력, 『신학사상』 제 145집 (2009, 여름), 245-267.
- 박경미, “오소서, 창조자의 영이여!-한국교회와 여성주의적 성서해석,” 『기독교사상』 집 470집(1998, 2월; 대한기독교서회), 27-28.
- 박신배, 『태극신학과 한국문화』(서울: 동연, 2009).
- \_\_\_\_\_, 『환원신학의 세계: 초대교회로의 행진』(서울: 더북, 2013).

- 서현선, “초기 기독교의 여성다움(Feminity)이해,” 서원모/방성규/이정숙/서현선(편역), 「여성과 초대 기독교」(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 \_\_\_\_\_, “한국 여성의 경험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한국여성신학회(편), 「한국 여성의 경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7-18.
- 유연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창 16:8): 페미니스트 비평과 하갈과 사라 이야기(창16장과 21장), 「구약논단」 제 23집 (2007. 3), 102-105.
- 이경숙, “여성해방과 성서해석,” 장상/소홍렬(엮음), 「신학하며 사랑하며」(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6), 67-81.
- \_\_\_\_\_, 「구약성서의 하나님 · 역사 · 여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_\_\_\_\_, “창세기 2-3장에 들어있는 신화적 요소와 그 신학적 메시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성서 · 여성 · 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7-28.
- \_\_\_\_\_, “한국 여성신학의 발자취와 미래: 주제별 고찰과 내일의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50집, (2007), 175-214.
- \_\_\_\_\_, 「구약성서의 하나님 · 역사 · 여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_\_\_\_\_, “창세기 2-3장에 들어있는 신화적 요소와 그 신학적 메시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성서 · 여성 · 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52-54.
- \_\_\_\_\_, “이스라엘의 조상 사라와 베두인의 조상 하갈 이야기: 창세기 16장과 21장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제 410집 (1993, 2), 164-165.
- \_\_\_\_\_,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창 29:31-30:24; 35:16-20),” 「기독교사상」 제 411집 (1993, 3), 209-210.
- \_\_\_\_\_, “동족과 복수에 희생된 삼손의 부인-딤나의 여인,” 「기독교사상」 제 421집 (1994, 1), 187-189.
- \_\_\_\_\_,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읽는 창녀 라합이야기(수 2:1-24;

- 6:22-26), 「신학사상」 제 134집 (2006, 가을), 47-66.
- \_\_\_\_\_, “여성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입다의 딸 설화(삿 11:1-40), 「기독교 사상」 제 422 (1994, 2), 194-195.
- \_\_\_\_\_, “사울이 방문했던 엔들의 무당: 삼상 28:3-25, 「기독교사상」 제 420집 (1993, 12), 202-205.
- \_\_\_\_\_, “아탈랴의 정치적 운명(왕하 11:1-21), 「기독교사상」 제 423집 (1994, 3), 181-183.
- \_\_\_\_\_, “요시야 종교 개혁의 동반자, 여예언자 홀다” 「기독교사상」 제 419집 (1993, 11), 192-198.
- \_\_\_\_\_,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 신실한 롯, 나오미, 보아스, 「기독교 사상」 제 424집 (1994, 4), 168-177.
- \_\_\_\_\_, “출애굽의 여성 지도자 미리암, 「기독교 사상」 집 412집 (1993, 4), 179-185.
- \_\_\_\_\_, “한나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신학, 「기독교 사상」 제 426집 (1994, 6), 141-143.
- \_\_\_\_\_, “회년을 향한 한국 여성신학의 과제, 「기독교 사상」 제 371집, (1989, 11), 77-88.
- \_\_\_\_\_, “다윗 왕조에 관한 신명기 역사가들의 기대와 비판, 「기독교 사상」 341 (1987, 5), 129-130.
- \_\_\_\_\_, “여성의 올바른 위치 정립, 「기독교 사상」 제 334집 (1986, 10), 184-188.
- \_\_\_\_\_, “성서기자의 눈으로 본 여성의 유형, 한국기독교학회(엮음), 「여성신학과 한국교회」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97).
- \_\_\_\_\_, “시형제 결혼을 쟁취하여 구원사를 엮어 낸 이방여성 다말과 롯, 한국여성신학회(엮음), 「다문화와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이경숙/피오렌자/곽푸이란/정현경, “아시아 여성신학 정립을 위한 제언,”

- 「기독교 사상」제 456집 (1996, 12), 69-87.
- 이윤경, “쿰란공동체의 안식일 이해: 안식일 법, 정결례, 예식,” 「신학사상」제 149집 (2010, 여름), 54-60.
- 이은선, “한국 여성그리스도의 도래를 감지하며,” 기독교여민회(엮음), 「발로 쓴 생명의 역사, 기독교여민회 20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_\_\_\_\_, “유교와 그리스도교,”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국 여성신학」(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1997), 33-35.
- 피오렌자 E. S./김윤옥(역), 「돌이 아니라 빵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양명수, “폴 리콥르의 해석학과 여성신학,” 「신학사상」제 149집 (2010 여름, 한국신학연구소), 163-208.
- 임희숙, “세계화 시대의 민족담론과 여성신학,” 한국여성신학회(엮음), 「민족과 여성신학」(여성신학사상 6집; 서울: 한들출판사, 2006), 39-41.
- 장상, “기독교 여성관의 재발견,” 창간호 (한국여성학회, 1985), 93-121.
- \_\_\_\_\_, “여성신학과 창조신앙의 의의,” 「한국여성신학의 과제」(한국여성학자협의회, 1983), 44-62.
- 정미현, “예수인가 바리테기인가,” 「한국여성신학」(2005, 가을; 발행/편집기관), 95-122, 110-111.
- 최만자, “한국여성신학-그 신학 새로 하기의 어제와 내일,” 「여성의 삶, 그리고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39-141.
- 최영실, “한의 질곡에서 생명으로 피어나는 한국 여성신학,” 「신학사상」제 100호 (1998, 봄), 122-124.
- 하비록스/유지향(옮김), 「영성 · 음악 · 여성: 21세기 종교와 성령운동」(서울: 동연, 1998).
- Gebara, Ivone, “Ecofeminism,” L. M. Russell/J. S. Clarkson(ed.),

*Dictionary of Feminist Theologies*,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xxx-xxx.

Laffey, Alice L.,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 Feminist Perspectiv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검색어

여성신학

여성 해방

페미니즘

여성주의 비평

생명신학

구약역사서

Womanist Theology, Study of the Old Testament  
History Books:  
Lee Kyoung Sook's Theology

Shin-Bae Park,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Bible

Korea Christian University

I purpose to study the feminin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History books. First I investigate the womanist theology, feminism, feminist criticism,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culture and Women.

Lee Kyoung Sook's Theology is not the theology of Old Testament History Books (Deuteronomistic History and Chronicle History Study) but the womanist theology in the liberation of women.

Therefore I try to research Lee Kyoung Sook's approach to the Old Testament, by knowing that the woman's value and God's creation purpose, the reason of a new Being in the New Testament, the order of the church.

www.kci.go.kr

Also I find out that the feminist theology can integrate all areas of theology, especially eco-theology.

Moreover, I intend to succeed to the woman tradition of the Old Testament, such as Sarah, Hagar, Deborah, Esther, Ruth, Rahab, Huldah and last Maria of NT. etc. The meaning of Old Testament Theology in the perspective of Womanist theology needs to be studied.

It is a possibility that the womanist theology could be the core of the life theology from woman liberation theology to eco-theology, Tong-Il theology. Now it is freshly produced that womanist theology contributes to develop the order of the church and creation in the perspective of liberation.

## Key word

Womanist Theology

Liberation of women

Feminist criticism

Life theology

Order of the church and the creation

Old Testament History books.

- 투고일: 2013년 7월 01일
- 심사일: 2013년 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05일

[www.kci.go.kr](http://www.kci.go.kr)